24시간 감시로 아동보호 체계 강화

전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축 · 피해아동 상담 · 치료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아동학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그간 민간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업무를 올 하반기부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직접 맡아 처리하는 등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예방 등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아동학대 피해예방 및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으며,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또 그간 민간기관인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해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는 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현장조사부터 응급 보호, 사후관리 등까지 맡아 챙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아동 재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 분리 보호 조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든 공무원과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방임과 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분기별 위기 아동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와 함께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했다.

올해 3월에는 아동학대 피해상담 및 신체·정신적 피해를 신속히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등 4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또한 모든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아동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 환경 개선 위한 협력사업 추진

전주시-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키로

전주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이하 전북본부)와의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환경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3월 전북지사가 전북환경본부 승격되면서 조직과 기능이 강화됐다.

시는 한국환경공단 전북본부 승격으로 그간의 자원순환 중심의 업무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와 화학물질 관리업무 등 다양한 환경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전북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우선 전북본부와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북본부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시설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 저감을 위한 재활용 정책을 공유하고, 전북본부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주시자연생태관과 전주시새활용센터, 전북본부가 운영 중인 환경사랑 홍보관 등 각 기관별 교육자원을 연계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경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북본부와의 협력 및 전문적인 환경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환경도시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4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8월까지 평화도서관과 서신도서관, 건지도서관, 쪽구름도서관 등 4개 시립도서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독서·강연·탐방·후속모임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게 목표다.

먼저 평화도서관은 '그니까 예술이 뭐냐면…(예술)'을 주제로 총 8회의 강연이 진행되며, 서신도서관의 경우 '인물 창조를 위한 심리여행(인문)'을 주제로 8회의 강연이 펼쳐진다.

건지도서관에서는 '깸의 꽃심으로 피어난 녹두꽃'을 주제로 한 3차례의 역사강연이, 쪽구름도서관에서는 '전통주 한 잔 신명나게 들이켜보시죠!'를 주제로 한 3차례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서는 또 각 도서관별로 예정된 강연과 함께 탐방 및 후속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이나 해당 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성폭력 2차 피해 규탄하는 여성단체 관계자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남북제주권역 관계자들과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관계자들이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완주 사회복지법인의 갑질과 성폭력 2차 피해 강력규탄 및 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평가제 2차 집합교육 실시

전주시가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전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2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실시간 랜선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1영역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3영역 건강·안전 ▲4영역 교직원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해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궁극적으로 평가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는 것이 목표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 3일 전주지역 보육교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센터는 오는 6월과 9월에도 1~2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나머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경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어린이집에서 평가제 준비를 위한 온라인 상담과 현장방문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컨설턴트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육현장의 평가제를 준비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반적인 보육환경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부모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과 중앙부처 및 전주시의 효율적 보육정책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 13명, 작가 됐다

전주시민대학 '도전! 작가되기' 강좌 수강한 시민 책 출간

책이 삶의 중심이 되는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가 시민 13명을 작가로 양성했다.

전주시는 20일 완산도서관 자작자작 책공작소에서 지난해 전주시민대학 '도전! 작가되기' 강좌를 수강한 시민 13명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지난해 전주시민대학 '도전! 작가되기'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이다. 수강생들은 조석중 배움아카데미 대표와 서영훈 신아출판사 대표, 양혜정 국방부병영독서코치의 지도 아래 그동안 자신들의 삶과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글을 집필해왔다.

수강생 작가들의 대표 저서는 ▲치치(정경숙) 작가가 과거의 경험과 선택을 바탕으로 삶의 지혜를 담은 '기적의 습관' ▲조은(신용조) 작가가 전주의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 공간, 문화를 현재에 비추어 살펴본 '연향 가득히, 덕진공원' ▲성혜숙 작가가 차(茶)의 중요성과 특징, 차가 삶에 주는 긍정적 요소와 차가 생활 속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한 '차테라피 전문가 성혜숙의 차(茶)마고도' ▲김법정 작가가 3대째 한약방을 운영하는 저자의 한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의학 서적 '옥쇄사주진료학'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시민대학 '도전! 작가되기'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도서관 관계자는 "올해도 책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정리해 참여한 예비 시민작가들과 자신만의 책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